

수영대회 효과...광주·전남 소비심리 개선

한은 소비자동향조사...교양·문화비 지출전망 가장 많이 상승 지역축제·BTS 공연 영향, 6월 1.4P 올라 3개월 내림세 마감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행사 등의 효과로 올해 2분기 광주·전남지역 숙박·음식점업 소비가 소폭 증가했다.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온 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1.4포인트 상승하며 기대치를 높였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2019년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5(광주 102.3·전남 102.1)로 전달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쓰이고 있으며 기준값 100보다 크면 상대적으로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달 전국 지수는 97.5로 지난 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월 104.6을 기록한 뒤 103.2→102.7→101.1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전달 '2019년 2/4분기 중 호남권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4~5월 열린 봄철 지역축제와 광주수영대회 기념행사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소비가 소폭 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측은 "합평 나비대축제(4월 26일~5월6일)에는 31만명이 방문했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한 슈퍼콘서트에는 유명가수 BTS가 출연하면서 국내외 3만여 명이 광주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의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소비지출전망CSI도 전달보다 1포인트 오른 111을 기록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했다.

소비지출전망CSI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항목은 4포인트가 오른 교양·오락·문화비였다. 해당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전망CSI는 5월 92에서 6월 96으로 4포인트 올라 2017년 6월과 2018년 6월 수준을 유지했다. 의식비(+2), 의류비(+2),

교육비(+2), 교통·통신비(+1) 등에 대한 지출계획도 소폭 좋아졌다. 하지만 주택 등 내구재(-3)와 주거비(-1) 부문은 하락했고 의료·보건비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 소비자들의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CSI(+2), 생활형편전망CSI(+1)와 현재경기판단CSI(+2), 향후경기전망CSI(+1), 취업기회전망CSI(+2) 등도 조금씩 올랐다. 하지만 현재가계부채CSI(+2), 주택가격전망CSI(+3)은 오르고 임금수준전망CSI(-1)은 오히려 내려가 팍팍한 살림사정이 반영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소비는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신차를 출시하고 주력차종 생산량이 14.3% 증가했지만 호남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42.5% 줄면서 내구재 판매가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손바닥으로 공항 탑승 수속 내년부터...결제·환전도 가능

내년부터 '손바닥'만으로도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한국공항공사와 바이오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내년 1월 금융회사에 등록된 '손바닥 정맥' 정보를 14개의 국내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바이오 정보가 공유되면 은행에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이 정보를 활용해 공항에서 신분확인 및 탑승 수속 등 절차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결제나 환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식음료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바이오인증으로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산 삼성 냉장고 '비스포크' 출시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9 수원 홈-테이بل테크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최근 새롭게 출시된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BESPOKE)'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한 '비스포크'는 소비자가 8가지 제품 타입을 선택해 조합이 가능하고 색상·재질 등 나만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냉장고다. <삼성전자 제공>

디지털금융본부·프로세스혁신부 신설...광주은행 조직개편

본부 인원 10% 영업점 재배치 사회공헌실, 사회공헌부 승격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사진)은 본부 조직 슬림화와 디지털금융을 강화하고, 자영업과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본부조직 개편과 함께 영업점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사 22면>

광주은행은 이번 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전략을 총괄하는 디지털금융본부를 신설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프로세스혁신부를 신설해 디지털화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부에서 부내팀을 대폭 축소하고 인원의 10%를 영업점에 재배치해 영업력을 강화했다.

특히 사회공헌실을 사회공헌부로 승격시켜 광주·전남 대표기업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영업자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부점장 인사에서는 젊고 패기 있는 그리고 혁신적인 디지털금융 마인드를 갖춘 3급 신입 영업점장 6명을 신규 발탁하여 배치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본부 조직 개



편은 디지털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위주의 질적 성장 추진을 위해 조직 효율성과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재정비와 더불어 마케팅 역량 확대에 목적이 있다"며 "특히 자영업과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광주·전남 대표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34.32 (+12.47)	금리(국고채 3년) 1.49 (0.00)
↓ 코스닥 698.21 (-11.16)	↑ 환율(USD) 1158.10 (+1.50)



해양에너지, 고객센터 일요일 휴무제 시행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는 다음달 1일부터 고객센터(사진) 근무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주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번 일요일 휴무제는 도시가스 및 관련 안전점검 및 검침, 도시가스연결 및 철거 서비스 등을 위탁해 운영하는 고객센터 근무자들의 휴식 보장과 사전 예약제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서비스센터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해양에너지 공공 권역인 광주시와 전남 1개시(나주시), 7개군(담양, 영광, 장성, 장흥, 함평, 해남, 화순)은 이사할 때 도시가스 연결이나 철거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계획한 날을 기준으로 2~3일전에 해양에너지 콜센터

(1544-1115), 모바일앱(m.hyenergy.c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www.hyenergy.co.kr)를 통해 일요일을 제외한 편한 요일과 시간을 예약하면 고객센터에서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한 후 기사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정상근무를 실시하고, 가스냄새 및 누설에 의한 긴급상황이나 가스사고는 365일 24시간 비상체계를 지속 운영해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이사는 "일요일 휴무제를 통해 고객을 방문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고객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계획한 날을 기준으로 2~3일전에 해양에너지 콜센터

/최재호 기자 lion@

청년층 유입 늘어 귀농·귀촌 줄어졌다

지난해 49만330명...전년보다 2만6000여명 줄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소폭 줄어 50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갔지만, 젊은 층 유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49만33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51만6817명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두고 "이는 2017년 많이 증가한 현상의 저해효과, 신중한 준비가 부족해 현상 반영된 결과"라며 "실제 확률을 낮추고자 귀촌 2년 차 이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같은 경우는 올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인 23.7%로 가장 많이 젊은 층이 귀농·귀촌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대는 17.2%, 60대 이상은 17.2%로 각각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40세 미만 젊은 층의 귀농이 전년보다 2.3% 증가해 20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356가구가 귀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지난해 새로 도입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청년층 육성 정책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처럼 젊은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겨냥한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귀농 수요에 맞춰 귀농 창업자금을 당초 3000억원에서 4572억원으로 늘린다. 대신 부정수급과 사기 등을 막고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시 환수·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